

한국 연쇄살인범죄의 테마와 특성 분석*

이 봉 한*

차례	
I. 서론	III. 한국의 연쇄살인 분석
II. 연쇄살인범죄의 테마	I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은 유영철, 정남규 사건과 마찬가지로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 여성들의 귀가시간단축, 지하여성들의 행태변화,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범죄자 프로파일링¹⁾과 범죄심리사 역할 부각,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일종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집중조명,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면서 사형집행 논의의 재점화, 피해자지원, 연쇄살인의 분석 등이 그것이다.

연쇄살인범의 신원이 밝혀지면 주위의 반응은 “전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지런하고 인사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술·담배도 못하는 착하고 건실한 사윗감이었다”와 같은 반복된 코멘트들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주변에서는 그와 관련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인간의 포식자는, 강간살인범도 처음에는 매력적인 남성 사람일 수 있는 것처럼, 동물과 달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가빈 드 베커, 2003: 71).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사이코패스형²⁾ 범죄자가 아니라도 형사정

* 이 논문은 대전대학교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1)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현장을 분석하고 유형 및 무형의 증거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해내고, 다른 범죄들과의 유사성(또는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수사선(수사에 공통되는 추리의 선)을 설정하고 용의자를 파악해내기 위한 수사기법의 한 가지이다(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Rossomo, 2000). 즉 전통적 수사방법을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도구이다.

책적으로 주요 관심대상인 직업적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피해자의 대항을 억제하거나 가해자의 특징을 지연시키는데 능숙하여 효율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이 어렵다.

한편 가장 극단적인 폭력범죄인 살인의 경우는, 그것이 강도살인이건 유괴살인이건, 강도나 유괴와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증거를 얻을 수 없다. 즉 범인이 구체적으로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자의 구체적 접근방식과 공격방법을 알아내야만 한다. 이론상으로는 가해자가 체포되어 자백을 하는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지만 범죄자는 거짓말을 하므로 수사심리학에서 인터뷰기법이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진술의 진위판단 기준의 하나에는 진술과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가 있는데 이는 범죄현장에서 객관적 사실이 사전에 철저하게 수집되고 증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Turvey는 범죄현장에서 범인과 희생자 사이에 나타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문서화이며 이것을 다시 현장 상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브라이언 이니스, 2005:209).³⁾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 관점에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피해자의 생활양식과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가해자의 공격여부는 피해자 개인이 안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작용이 아니라, 특정 가해자가 피해자에의 접근 및 공격에 쏟는 기술과 시간의 작용이다(Turvey and Petherick, 2008:167).

연쇄살인범들은 매우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함으로써 연쇄살인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살인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능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법이 진화된다. 제1차 동기는 무기력한 피해자에 대해 극단적인 권력과 통제를 가지는 것이고 성적 구성요소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살인범들은 특별하게 취약해 보이거나 기만하기 쉬워 보이는 특정 피해자를 찾는 경향을 보인다. 공정식(2006: 30)에 의하면 살인사건의 특성별 분류로 살피본 선행연구들은 살인의 분류에서 피살자-살인범 관계, 상황(부차성 또는

2) 사이코패스는 전체 인구의 약 1% 가량으로 추정되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의 90%, 폭력범죄자의 50%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3) 그에 의하면 한 연쇄살인범(제롬 브루더스)은 5시간의 인터뷰 내내 거짓말을 했는데 그의 매력적인 개성과 관대하고 불임성 있는 태도에 속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인터뷰 전에 검시조서,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서 등 관련수사기록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살자유발), 동기를 주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⁴⁾ 이에 더해 살인의 테마에 따른 유형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살인범죄에서의 테마와 연쇄살인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공격하는 방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둘째로, 이를 7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연쇄 및 연쇄성⁵⁾ 살인사건 23 시리즈⁶⁾, 총 164건(살인 154명, 살인미수 40명)을 대상으로 범인과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및 연쇄살인의 주기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원배(2004: 24-31.)의 「7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연쇄 및 연쇄성 살인」도표를 기준으로 연속살인사건이나 대표성이 적은 사건을 제외하고, 83년 강창구사건과 86년 정영팔사건을, 그리고 1990년의 조경수 등 셋별 룬살롱사건과 2004-6년의 서남부 연쇄살인 정남규사건, 2007년의 보성노인연쇄살인사건, 2008-9년의 성적 연쇄살인 강호순사건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 중에서 동일범(집단)에 의한 살인을 단일사건으로 하여 총 23사건(미해결 3사건과 연쇄성 살인 5사건 포함)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서울경찰청 발간자료집, 월간 수사연구, 한국의 연쇄살인(표창원:2005), 경찰종합학교 논문집, 학회지 논문, 판례, 위키백과 검색,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건담당 수사관과의 인터뷰에 의했다.

4) 그 밖에도 피살자의 성과 결혼여부, 살인범의 정신병상태, 약물과 알코올 관련 살인의 유형 분류변수가 있다.

5) 한국의 연쇄살인 표본 수가 적은 관계로 연구목적상 연쇄성 살인을 연쇄살인과 함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회에 그친 경우이므로 ‘냉각기를 갖는 3회 이상의 살인’이라는 연쇄살인의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이와 횡수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실무관행대로 ‘연쇄성 살인’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6) 시리즈가 정확한 표현이나 이하에서는 ‘사건’으로 표현할 것이다. 특히 선정에 있어서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사건파일이 갖는 연구적 가치를 고려하였다.

II. 연쇄살인범죄의 테마

1. 연쇄살인의 개념 및 특성

(1) 연쇄살인의 개념

동일범이 여러 명을 살해하는 다수살인은 장소의 이동 여부, 단일 혹은 연속성, 사건의 개별성 및 심리적 냉각기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다중살인, 연속살인, 연쇄살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중살인은 한 장소에서 한 번에 세 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연속살인은 장소를 폭넓게 이동하며 여러 사람을 살해하되 그 행위들이 서로 단절됨 없이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행동들일 경우를 의미한다.⁷⁾ 연쇄살인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세 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이며, 범죄자는 각 사건들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를 갖는다(Holmes & Holmes, 2002). 심리적 냉각기라는 것이 일시적 휴지기가 아니고 복잡한 심리상태의 변화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존의 문헌은 연쇄살인의 외연을 심리적 냉각에 대한 분석 없이 확장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일단 국내의 연쇄살인 및 연쇄성 살인의 의미를 따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쇄’라는 우리 식의 용어가 있어왔고 ‘연쇄성’에 대한 수사관서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연쇄살인 여부를 심리적 준거기준으로 판단할 개인역량이 부족하거나 연구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쇄살인은 경찰실무에서 살인사건의 57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여 취급하면서 연쇄성 살인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연쇄성 살인은 수사실무 용어로서 노련한 수사관이 한 사건을 분석하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만일 범인이 검거 또는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면 범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라고 한다.⁸⁾ 따라서 연쇄살인은 “한 개인이 최소한 3명의 희생자를 한 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살해하는 것”으로 연쇄성 살인은 “2명의 희생자를 한 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살해하

7) 연속살인은 192발을 쏘아 32명을 살해한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사건의 예와 같이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없으며 특정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극도의 흥분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흥분상태에서 살인을 계속하는 경우가 연속살인이고 연속살인범의 분노는 사회 자체를 향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연속살인은 연쇄살인의 의미로 쓰인다.

8)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서울:대성인쇄소 2004)

는 것으로 범행이 계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내리기로 한다.

(2) 연쇄살인의 특성

가. 연쇄살인의 일반적 특성

Holmes & DeBurger(1988)는 연쇄살인이 다수살인의 다른 유형들과 구별되는 다섯 가지의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행이 반복되고 둘째, 주로 단독범의 소행이며 셋째, 범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넷째, 의도적 살인이며 마지막으로 동기가 불확실하다. 연쇄살인의 특성 외에 일반살인사건을 간단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Holcomb 등(1988)에 의하면 모든 살인사건의 4분의 1 정도는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데, 뚜렷한 동기 없는 살인자들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 알코올 남용전력이 없음; 교도소에서 최근 출소; 범행시 기억상실 주장; 범행 부인; 정신병적 행동을 보여 범행에 이르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Glick and J. Mitchell Miller, 2007: 251). Wolfgang은 살인사건 연구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특징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는 약하고 수동적인 개인으로서 공격적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가해자는 잔인하고 강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찾겠다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에 관한 함축성은 넷 중 하나가 제거되거나 반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범의 심리유형별 특성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공정식(2006)에 의하면 정신병질군은 기질불안군에 비해 비면식피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고 주로 흥기를 사전에 소지하며 피살자 유발상황이 적고 시체유기훼손가능성이 적다.

연쇄살인범은 살인자만이 알고 있는 동기에 의해 안면이 없는 희생자를 일대일로 반복적으로 살해한다. 대량살인과 달리 대부분 사적인 장소에서 목격자 없이 일어나며 대체로 성행위의 흔적을 보이며 가학적 환상과 백일몽같은 특성을 보인다(박충민:8). 연쇄살인의 특성은 동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살인에 나타나는 특성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것은 연쇄살인범 또한 다른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Holmes는 연쇄살인을 4가지 유형 즉, 망상형(The visionary serial killer), 사명감형(The mission serial killer), 쾌락형(The hedonistic serial killer), 권력형 연쇄살인(power-control serial killer)으로 나누고 있다(Holmes & Holmes, 2002). 이중 권력형 연쇄살인범 유형은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이나 억압, 통제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연쇄살인범이다. 성적 통제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며 피해자의 생사 통제권을 통해 만족감을 추구한다.

나. 연쇄살인범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연쇄살인범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Pakhomou의 연구(2004: 222-223)⁹⁾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연쇄살인범의 평균연령은 32.6세(피해자의 평균연령은 25.8세)이고, 61.9%가 결혼 또는 별거, 이혼의 경험이 있고, 38.1%는 미혼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미만은 11.5%, 고졸은 50%, 전문대졸이상은 20%, 4년제 대학이상은 5%로 나타났다. 즉 연쇄살인범의 약 61% 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범죄자 중 11명(52.4%)은 정신과적 진단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6명(28.6%)은 반사회적 성격장애(APD)¹⁰⁾, 2명은 기분장애, 나머지 3명은 편집증, 정신분열증, 불안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연쇄살인범들은 17명(81%)이 범죄경력を 가지고 있는데, 강간을 포함한 성적 범죄는 13명(61.9%), 절도전과는 8명(38.1%), 4명은 다중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김상균, 2005에서 재인용).

2. 살인범죄 테마의 의의와 유형

(1) 테마의 의의

테마분석에서의 테마란 범인의 일련의 행동을 검토했을 때 통합 또는 정리로서 보여주는 범인의 범행스타일로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행동과

9) 연쇄살인범 21명의 사례와 피해자 9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10)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적 성격 장애(APD)는 자주 혼동되어 쓰이는데 두 가지 용어의 차이점은 동정심과 숭고함의 부족이다. APD의 범주 안에 사이코패스들이 모두 속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반사회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선천적인 기질이 강하다.

학적 사건링크방법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행동을 취하다 보면 범행마다 변동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범행테마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개념으로서 수법과 서명적 행동, 피해자에 대한 우위확보와 피해자 공격방식을 순서대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는 III. 한국의 연쇄살인분석의 개념적 도구로 쓰일 것이다.

가. 수법의 의의

가해자가 범행을 실행할 때 범죄발생장면에서 피해자의 대항을 억제하여 우위에 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를 수법이라고 한다. 범죄수법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및 방법, 습벽 등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개인식별의 기준 또는 정형이다(경찰대학, 2004: 276). 범죄수법은 심리적으로는 인간행위의 반복성(反復性)에서 입증되며 사실적으로는 범죄현장에 있어서의 수법의 필존성(必存性)에서 입증된다.¹¹⁾

수법과 구분하여야 하는 서명 또는 인증(signature)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범죄인의 행동에 독특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고, 범행수법(Modus Operandi)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범죄자가 학습하게 되는 고유한 수법이다. 수법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나, 서명적 행동(behavioral signature)은 범인의 강한 심리적 욕구에 의해 생긴 행동으로, 범행완수에 필수적이지는 않고 범행동기 및 개성을 반영하는 행동이다. 범죄자는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범죄수법을 바꾸는데 성범죄의 경우 3,4 개월에 수법이 변용 내지 진화한다(渡邊 등, 2006:128-29). 침입전 의사결정되는 수법항목(차량이용, 범행지, 범행대상인 건물종별 등)은 전체적으로 반복성이 높으나, 상황의존도가 보다 높은 물색중의 행동 등은 반복성이 낮다. 수법변화요인으로는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이 있으며 범행초기는 범행스타일 미확정 때문에, 장기범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범죄수법은 범죄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범죄현장은 피해자, 증

11) 수법수사란 범인이 일정한 수단과 방법 및 습벽으로 반복하여 범행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이러한 수법유형을 분석 및 수집, 대조함으로써 범인을 찾아 검거하는 수사활동이다. 범죄수법의 반복성은 심리학적으로 고찰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식으로서 용이성, 안전성이 요인으로 되고 있다. 수법은 일본의 手口와 같은 의미이다.

인 등이 남긴 흔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여주는 피해자, 공격자, 증인들의 행동에서 역동성¹²⁾을 파악할 수 있다(홍성열, 2008). 범죄자들이 자신만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행동방식(범행방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행하기 편하고 익숙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각자가 만든 행동패턴은 일상생활에서 계속된다. 범죄 징표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지적해 주는 성격¹³⁾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나. 살인범의 우위확보방법

細江 達郎(2001, 100-105)에 의하면 범죄장면에서 피해자의 대항을 제거하는 수법에는 첫째, 가해자측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적 수법과 둘째,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 대항을 못하게 하는 절도적 수법, 그리고 셋째, 가해자를 피해자의 협력자로 오인시켜 대항을 못하게 하는 사기적 수법이 있다.

살인과 관계있는 폭력적 수법은 공갈이나 폭행, 강도, 상해, 살인 등의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가해자는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하게 힘을 과시하여 피해자(및 억제자)의 대항을 억제한다. 과시하는 힘에는 위협적인 목소리, 육체적인 힘, 흥기, 또는 배후에 있는 폭력조직의 암시 등이 있다.

폭력적 수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면전에 있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 수법은 계획성이 없는 돌발적인 것에도 많지만 계획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되지 않기 위해 궁리를 하게 된다. 살인이나 복면강도는 가해자의 특징을 지연시키고, 익명의 협박이나 원거리의 저격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다.

大淵 憲一(2006, 234)에 따르면 폭력의 동기가 영향이나 강제인 경우에는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며 원한이나 개인감정과 같은 정동적 요소가 적고 즉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하게 된다.¹⁴⁾

12) 역동성이란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한 장면에서 나타내는 복합적 관계를 의미한다.

13) 성격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3가지 요소는 특이성, 안정성, 일정성이다.

14) 폭력성의 의미가 성인과 소년에게 각각 다르다 : 성인은 도구적 폭력, 소년은 표출적 폭력의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다.

(2) 살인범죄 테마의 유형

외국의 선행연구로서 横田 등(2003)은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해결되었던 살인사건 465건을 분석하여 <표 1>처럼 4가지의 범행 테마로 구분하였다. 이는 살인사건에 즈음하여 행하여지는 37가지의 범행 행동(예, 재갈물림, 사정)을 변수화하여 격앙형, 공범형, 피해자통제형, 성적 폭행형의 4가지의 범행스타일로 나눈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범행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쉬운 확률은 근거리로, 그와 반대의 경우는 원거리로 표시한 그림(十모양)이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범행유형에 해당하는 범인에게는 각각 공통되는 범인의 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하나의 테마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전체가 한 사건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의 사건이 복수의 테마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성적 폭행형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범인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교할 때 거의가 단독범이고 피해자와의 면식이 없는 경향을 띤다.

<표 1> 살인사건 테마의 유형

유형	내용
격앙형	· 피해자를 속박하는 등의 행위가 없이 피해자에게 불의의 습격을 가하여 사체를 그 자리에 방치하는 스타일 · 살해 후 피해자에 대해 원가의 특이한 행동(피해자의 얼굴을 덮음, 분향을 올림)을 취하는 것도 있다. · 살해현장은 옥내인 경우가 많고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 면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살해방법은 칼 또는 액살인 경우가 많다. ·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도 많다.
공범형	· 조직적 또는 공범으로 노상이나 산중 등의 옥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형 · 피해자가 복수 있는 것도 있다. · 살해방법은 구타 또는 총에 의한 것이 많다.
피해자 통제형	· 피해자를 속박하는 등의 구속을 행한 후 살해하고 그 후 사체를 이동시키는 등의 공작을 행하는 유형 · 사체는 피해자의 자택 이외의 옥내에서 발견되는 것이 많다.
성적 폭행형	· 피해자에게 성적 폭행을 가한 후 살해하는 유형 · 피해자가 전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 외에 범인의 사정이나 사체의 일부절단·도려냄·음부등에 이물삽입 흔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피해자가 10세 이하의 경우도 있다.

자료: 高橋 良彰, 2005: 111.

일반살인범죄와 연쇄살인범죄간 테마의 의의가 다른 것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나 선행연구를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여기서는 동일선상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연쇄살인범의 유형과 동기

(1) 유형

연쇄살인범에게 있어서 신체적 공격에 취약한 대상은 곧 쉽게 유괴되거나 제압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인, 여성이다. 혼자 시골길을 걷거나 자동차에 편승¹⁵⁾하거나 특정 장소¹⁶⁾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 가해자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피해자 발견방법이나 공격방법에 따라 연쇄살인범을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형론은 범주간의 상당한 중첩이 있는 점, 일부 개인은, 예를 들어 동기에 의한 분류라면 공격자가 여러 동기를 충족하는 것과 같이, 둘 이상의 분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개인들을 어떤 범주에 넣는 것이 행동은 시간과 장소 모두를 초월하여 일관되어 있다는 의문스러운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Bartol and Bartol, 2008: 284). 그럼에도 유형론은 인간행동의 복잡성과 동기 및 대본의 다양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

가. 피해자 발견방식에 의한 유형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를 찾아 공격하는 독특한 사냥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Rossmo(1996)는 연쇄살인사건에서 피살자를 처음 만나는 지점, 피살자를 공격하는 지점, 살해하는 지점, 그리고 사체를 버리는 지점을 고려하여 지리추정 프로파일링 기법을 고안하였다. 연쇄살인범은 피해자 발견방식과 피해자 공격방법에 따라 각각 유형화되고 있는데 피해자 탐색은 피해자 목적장소의 선택과 연결되고 공격방법은 시체암매장과 관계가 있다.

<표 2>에서 사냥꾼형과 밀렵자형은 캔터가 영국에서 발생한 연쇄 강간사

15) 은보현은 휴진 택시를 타고 다니며 여승객을 납치, 성적 살인을 하였고 강호순은 고급차를 이용해 호의동승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다.

16) 유영철은 노인만이 사는 단독주택에 침입하거나 원룸에 피해자를 불러들이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건을 연구하면서 사용한 ‘약탈자(Marauder)’와 ‘통근자(Commuter)’ 개념과 각각 비슷하다(브라이언, 2005, 228-229).¹⁷⁾ 여성을 호의동승하는 방식의 사냥꾼형¹⁸⁾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범행대상을 자신의 차에 태울 수 있을 만큼 용의주도하다.

<표-2> 피해자 발견방식에 의한 연쇄살인범 유형

유 형	내 용	사 례
사냥꾼형 (Hunter)	자기의 거주지를 기점으로 피해자를 탐색	· 거주지 주변의 대문이 열린 집 침입 ·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성에 호의동승
밀렵자형 (Poacher)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피해자를 탐색	· 여자 대학생 기숙사에 침입 · 노인거주 고급단독주택에 침입
산책자형 (Troller)	다른 활동을 하던 중에 전혀 계획 없이 피해자를 포착	· 농로에서 하교길 여학생 물색 · 방문판매원 강간살해
덫사냥꾼형 (Trapper)	직위나 직종을 이용하여 혹은 피해자가 스스로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 포착	· 구인구직란에 모델 오디션광고 · 출장마사지 여성을 원룸으로 호출

자료: Rossmo(1996)의 분류내용에 연구자가 사례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

나. 공격방법에 의한 유형

연쇄살인범은 피해자 공격방법에 따라 <표 3>과 같이 기습형, 스토커형, 매복형으로 구분된다. 스토커형의 공격, 살인, 그리고 사체매장의 장소는 피해자의 활동공간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매복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장소, 거주지나 작업장의 어디엔가 사체가 숨겨진다. 매복형의 범행대상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거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선정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된 사람을 선택한다(김상균, 2005: 12-13).

17) 약탈자들이 저지른 범행 장소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서 대략적인 원으로 그릴 때, 이 원안에 그들이 사는 집이 들어간다. 강호순의 경우 1지점이 멀리 있기는 하지만 이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캔터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45명의 상습강간범들 가운데 ‘통근자’로 분류된 경우는 5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18) 강호순, 테드 번디, 에드먼드 캠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연쇄살인범 캠퍼는 예쁜 여학생 앞에 차를 세운 뒤 여자에게 어디까지 가는지 묻고는 마치 시간이 충분한지 어떤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처럼 시계를 보았다. 이런 행동이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다. 테드 번디는 준수한 외모로 가짜 김스를 하고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표-3〉 공격방법에 의한 연쇄살인범의 유형

유 형	내 용
기습형(Raptor)	범행대상을 맞닥뜨리는 순간 곧바로 공격한다.
스토커형(Stalker)	범행대상을 포착한 다음 끈질기게 지켜보면서 서서히 다가가 공격할 기회를 기다린다.
매복형(Ambusher)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장소, 거주지나 작업장으로 유인해 공격하는 형

자료: Rossmo(1996)

(2) 연쇄살인의 동기

연쇄살인에 대한 동기분류를 한 연구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 살인에서의 동기분류를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살인은 대개 동기범죄이고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진다. 살인은 다른 폭력범죄와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얻어내기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피의자의 관계를 상세하게 알고자 현장의 상황 및 피해자의 속성을 추측한다(渡邊和美 등, 2006: 59). 살인의 동기는 크게 도구적(instrumental) 동기와 표출적(expressive) 동기로 나누어지고(Siegel, 1998) 이는 폭력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도구적 동기는 성욕, 돈, 사회적 지위와 같이 미래에 명백한 목적이 존재하는데 반해, 표출적 동기는 구체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욕구불만, 분노, 논쟁, 말다툼, 낭만적 삼각관계, 사춘기적 집단살해(school shooting)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된 자극은 폭력 그 자체이다. 그러나 공정식(2006:83)은 살인 동기를 우발적-계획적 또는 반응적-도구적이라고 극단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살인에 있어서 동기는 반응적(표출적)이면서 도구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Woodworth 등(2002)은 일반적인 살인범이 반응적 공격성에 의하여 범행하는 반면에 정신병질에 의한 살인범은 도구적 공격성에 의하여 더 자주 범행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근 정신병질 진단을 받은 연쇄살인범의 살해동기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Douglas 등(2006)은 일반적인 살인범죄의 동기를 4개의 큰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로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범죄적 이익을 위한 동기, 개인적 원인에 의한 동기, 성적 동기, 집단적 원인에 의한 동기가 큰 범주에 해당된다(김정옥·이수정, 2005: 131-149). 한국의 연쇄살인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범죄적 이익을 위한 동기 중 보험관련 살인(1건), 개인적 원인에 의

한 살인 중 불특정동기에 의한 살인(8건), 성적 살인(14건)이 있다.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살인 중에서 불특정동기에 의한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¹⁹⁾는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거나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금품을 노리는 생계형 범죄도 아니며, 사회전체에 대한 불만 등을 분출하는 표출적 범죄이다. 피해자층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한다.

성적 동기는 개인적 동기에 해당되지만 살인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渡邊 和美 등(2006: 58)은 범행시에 성적인 동기 또는 성적인 행위가 인정된 살인, 살인미수사건의 범인 83명의 특징에 관해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와 사전면식이 있는 자가 약 30%라는 것과 약 반수는 살인, 강도, 방화, 유괴, 공갈, 절도 중 어느 것인가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 범행의 약 80%는 범인의 주소, 근무지, 전주소 등의 거점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밝히고 있다.

Ⅲ. 한국의 연쇄살인 분석

1. 한국 연쇄살인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인의 연령대는 미해결된 3사건을 제외한 20사건을 기준으로 20대 6사건(30%), 30대 10사건(50%), 40대 3사건(15%), 50대 이상 1사건(5%)으로 평균연령은 30.6세(피해자의 평균연령은 33.2세²⁰⁾)이다. 미제연쇄살인사건 중 거의 2,30대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되는 2사건(부산어린이 유괴살인과 화성연쇄살인)까지 포함하면 90%가 2,30대에 의한 연쇄살인이 되는데 이는 힘에 의한 지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

19) 범죄자의 범죄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여 무동기범죄라고도 하나 정확하게는 ‘불특정 동기’라고 해야 맞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사건이나 일본의 도오리마(通り魔)사건과 같이 특정한 원한관계가 없는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범행대상자이고 대부분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지며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고 현장에 직접적인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범도 날로 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프로파일링(profiling)’이 유용하다.

20)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51.3%, 60대 이상의 피해자가 15.2%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은 노인범죄로서 노년기에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다.²¹⁾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전과기록이 있다.²²⁾ 초범연령과 전과경력은 확인된 전과자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19세, 4범이다. 연쇄살인범은 미혼이 압도적이지만 이혼 2명, 기혼2명이 포함되는데 특이한 것은 기혼자 2명이 여성과 노인이라는 점이다.

<표-4> 한국 연쇄(성)살인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연쇄살인 사건명	전과	특이사항	결혼	초범내용/ 초범연령	피해자 평균연령	피해자 (남/여)
1	김대두(26)사건	2범	체격왜소, 멧을 부림. 처음에는 복면, 이후는 복면않고 범행, 대상을 정하면 당연히 살해.	미혼	폭력/23세	33.8세	10/7
2	부산어린이 강간 살인사건	미상	시체에 글씨	미상	미상	8.3세	2/2
3	강창구(31)	5범	마티재에서 절에 가는 부녀자를 미행/잠복 하여 강간후 살해	미혼	절도/14세	44.8세	0/6
4	화성부녀자 사건	미상	야산3건, 논과 농수로7건, 주택내1건은 해결 19시~23시 8건, 심야1건, 6:20 1건, 미상1건	미상	미상	32.3세	0/11
5	정영팔(24) 연쇄 살인	3범	서울 여수 김천에서 교살	미혼	폭력/20세	47세	1/3
6	김선자(49)독극 물이용살인	x	여성에 의한 연쇄살인. 이익을 취하면서 죽이고 싶어 죽음	기혼	x	52.2세	1/4
7	심영구(30)	1범	체격왜소, 음주후 포악, 대인기피, 범행대상 정하면 당연히 살해	미혼	강도상해/14세	45.7세	3/4
8	셋별루살롱(조경수, 24 등 2인조) 사건	조:2범 감:x	고향선후배로 소년원에서 모범수로 출감. 살인외에 총 38회의 특수강도 및 성추행	미혼	강도살인 미수/17세 X	18.2세	2/3
9	지춘길(47)외딴 집 살인방화사건	15범	고아로 성장, 저명인사·국회의원 등 살해계획, 범행대상 정하면 당연히 살해. 죽이고 싶어 죽음	미혼	특수절도/17세	66.3세	0/6

21) 연합뉴스 2008.3.11 검색. 몇몇 범죄 전문가와 뇌신경학자들은 일부 노년기에 발생하는 뇌기능 장애(노화현상)가 본래 성격장애 같은 내면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경우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2) 이는 전과자 관리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클리경향 812호, 2009. 10. 28 검색.

	연쇄살인 사건명	전과	특이사항	결혼	초범내용/ 초범연령	피해자 평균연령	피해자 (남/여)
10	구시마를 영유아 실종및유괴사건	미상	피해자 생후6일~5세 1명은 장기적출. 방안에서 잠잘때 유괴.	미상	미상	2.5세	1/2
11	지존파(김기환, 27 등 7인) 사 건: 강동은,김현 양,문상록,백병 옥,강문섭,이경 숙	감:1범 강:2범 감:1범 문:3범 백:2범 강:X 이:1범	두목 김기환은 8세때 부 사 망, 바둑아마 1단 머리가 영 리함 중학교중퇴4, 고교중퇴3명 탈퇴조직원 1명 포함 암매 장, 사체소각 범행대상으로 유명백화점 고객명단 입수	미혼	강간치상/ 특수절도/ 상해/ 특수절도/ 특수강도/ X 절도/ 3)	29.8세	3/2
12	온보현(37)사건	13범	사춘기때, 부모불화로 母을 독자살, 父를 구타하고 가 출. 택시운전 종사자, 자신의 나이만큼 38명 살해 기도 및 살인일기, 50명 살 해목표 세움.	미혼	폭력/ 24세	25세	0/2
13	이승수(21)사건	3범	생활고, 대인기피와 소외감 범행대상 정하면 당연히 살해.	미혼	특수절도/1 5세	34.5세	1/3
14	황영동(49)사건	14범	특수강간으로 구속된후 1개 월만에(녹내장)출소, 범행시 작, 범행대상 정하면 당연히 살해.	미혼	절도/20세	43세	0/5
15	정두영(31)강도 살인사건	6범	유복자, 母 재가, 고아원, 초 등중퇴, 86년 살인으로 12 년 복역중 고졸 검정고시합 격, 복면을 쓰고 범행. 검문피하려 철저히 대중교 통이용.	미혼	강도상해/ 18세	53.8세	2/7
16	유OO(33) 대전 접대부 살인사건	5범	부모 이혼 외가생활, 교교2년 중퇴	미혼	폭력/ 14세	32.5세	0/2
17	김해선(31)고창 해리 사건	8범	부로부터 매맞고 성장, 화풀 이로 犬살해, 牛났으로 공 격. 동거녀로부터 강간피소, 다방종업원과 동거.	미혼	특절/16세	13.7	1/2
18	조OO(32) 전주 시 노파살인방화 사건	5범	父의주벽,父가 상습적으로 母폭행 장면목격. 범행후 목 격자처럼 경찰에 제보, 경찰 행동주시	미혼	절도/?	804)	1/2
19	허재필(25) 등 2 인조 수원사건	허:X 감:1범	계속범행 위해 차량번호판 절취 가정결손, 허재필은 초등때 母가출, 김경훈은 체포하려하자 자 살.	미혼	X 특수강도/2 1	25세	0/6

	연쇄살인 사건명	전과	특이사항	결혼	초범내용/ 초범연령	피해자 평균연령	피해자 (남/여)
20	유영철(34) 사건	11범	중1때 父정신분열사망, 둘째 兄34세 때 사망. 2000.10 강제이혼당함. 03.12~04.1 마사지사와 2개 월 교제, 청혼거절당함. 경찰사칭, 그림숨씨	이혼	절도/ 18세	41.7세	4/16
21	정남규(36) 서남 부사건	5범	10세때와 군복무시절 성폭 행피해	미혼	특수강도/1 9세	22세	4/9
22	보성여부 오종근 (70)사건	9범	2남5녀의 부 바다에서 익사시키는 수법	기혼	병역법 /32세	21.3세	1/3
23	강호순(38) 사건	9범	방화살인 및 보험사기 후 11개월 정도 공백기. 스타 킹 등으로 살해후 암매장. 4 번 결혼 22개월의 공백기 후 계속	이혼	특수절도/2 2세	37세	0/10
계	총 31명(30.6세)	127범		기2/ 이2		33.2세	37/117

주 1) 첫 살인으로 복역(12년)후 99.6.2의 살인부터 기산

2) 같은 날 03:20, 06:40 각각 발생

3) 사형집행으로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함

4) 총 3명의 피해자 중 연령 미상 피해자 2명을 제외하고 1명으로 평균냄

2. 사건에 대한 계량적 분석

앞서 본 살인사건의 테마와 연쇄살인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테마와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살인사건에 대한 테마들이 과연 연쇄살인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의 발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응 시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표-5> 한국의 연쇄(성)살인 분석(※는 미제사건)

	연쇄살인 사건명 (숫자는 나이)	발생연도 (시대순)	살인 (미수)	횟수	주요 동기	공범	연쇄성	살인 주기
1	김대두(26)사건	75.8~ 75.10	17(4)	9	성, 취재, 불특정 ¹⁾			7.8일
2	부산어린이 강간살인사건※	75.8~ 75.11	4(6)	10	성			33.6일
3	강창구 사건(31)	83.7~	6(1)	7	성			261.6일

	연쇄살인 사건명 (숫자는 나이)	발생연도 (시대순)	살인 (미수)	횃수	주요 동기	공범	연쇄성	살인 주기
		87.2						
4	화성부녀자 사건*	86.9~ 96.11	11	11	성			369.3일
5	정영팔(24) 양돈업부부살 해	86.10~ 87.8	4	3	성, 취재			153일
6	김선자(49)독극물이용살인	86.10~ 88.7	5(1)	6	취재			154일
7	심영구(30)	89.6~ 89.11	7(3)	10	취재, 불특정			28.1일
8	셋별룸살롱(조경수, 24 등 2인조) 사건	90.1	5(1)	2	분노	○	○	26일
9	지춘길(47)사건	90.3~ 90.10	6	6	성, 취재, 불특정			75일
10	구시마을 영유아사건*	91.8~ 94.8	3(2실종) 2)	6	불명			456일
11	지존파 사건	93.7~ 94.8	5	4	불특정	○		141.3일
12	온보현(37)사건	94.9	2(3)	6	성, 취재, 불특정			1일
13	이승수(21)사건	97.2.10~ 2.21	4(1)	4	취재			3.6일
14	황영동(49)사건	98.9~ 98.10	5	2	성, 취재, 불특정		○	7일
15	정두영(31)강도살인사건	99.6~ 00.4	9(9)	16	취재			77.8일 ¹⁾
16	유OO(33)접대부 살인사건	00.6.26	2	2	성		○	0일 ²⁾
17	김해선(31)사건	00.10~ 00.12	3	2	성		○	55일
18	조OO(32)사건	91.12~ 01.10	3	6	취재			?
19	허OO(25) 등 2인조사건	02.4	6	4	성, 취재	○		3.7일
20	유영철(34) 사건	03.9~ 04.7	20	16	성, 불특정			19.5일
21	정남규(36) 서남부사건	04.1~ 06.3	13(11)	21	불특정			100.4일 ³⁾
22	보성여부 오OO(70)사건	07.8~ 07.9	4	2	성		○	25일
23	강호순(38) 사건	05.10~ 08.12	10	9	성			143.3일 ⁴⁾
계			154(40)	164		3	5	97.7일

- 주1) 불특정동기는 Douglas 등의 살인의 동기분류에서 불특정동기 살인을 의미
- 2) 2명 실종은 사망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에 불포함
- 3) 미수가 가장 많은(27.5%) 이 사건의 경우 2004.1.14-2006.4.22(462일간) 동안 상해 및 방화(3건)까지 포함할 경우 19.25일의 주기로 범행하였고 04.8.4-05.4.6의 공백기가 특이함.
- 4) 제1공백기(약10개월)와 제2공백기(약22개월) 사이에 범한 6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98-10-10-3-1의 간격으로 주기(평균 24.4일)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특징

3. 분석결과와 검토

발생연대별 특징을 보면, 70년대 이후 2009년 현재까지의 총 23사건 중에서 2000년대에 발생한 것이 7사건으로 30%에 이른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는 유영철사건²³⁾과 정남규사건, 강호순사건은 범인이 정신병질자(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²⁴⁾ <표 6>의 분석내용을 세분하여 표의 구분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6> 한국의 연쇄살인 테마분석

구분	테마(행동스타일)	특이사항
방화	방화(5)	· 보험목적살인 1건, 연쇄방화 1건
성적 동기	강간(11) 성추행(1)	· 미제 화성연쇄살인과 부산어린이유괴사건 포함 · 성추행은 70세 노인범죄
공범	공범(4)	· 범죄단체(7명) 1건, 1건은 공범의 자살
차량이용	납치(6)	· 렌터카(1), 도난택시(1), 승용차(4) · 승용차 1건은 택시표시등 부착 · 호의동승 2건
살해방법	교살(10) 둔기(8) 독극물(1) 예기(19)	· 교살-곤, 스타킹, 블라우스, 목도리, 넥타이 · 흉기 현지조달(1) · 독극물 이용은 여성범죄 · 칼(9), 과도(2), 식도(3), 등산용 칼(3), 낫, 도끼

23)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망상형, 사명감형, 권력형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24)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지존파사건(7명중 6명사형)의 경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비추어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은 정도로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범행인 점, 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피해자로 선택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범한 점에서 정서적 반응이 결핍된 사이코패스의 전형임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지존파사건의 경우 인육을 먹은 행위나 조직원을 살해한 일 등은 정서의 심각한 결핍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유층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미리 사채소각로와 다이너마이트, 총기류까지 준비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분	테마(행동스타일)	특이사항
	총기류(1) 익사(1) 액살(3)	· 총기 - 공기총 · 익사에 의한 질식사 는 노인범죄
사체처리	사체절단 도려냄(1) 장기훼손(1) 사체소훼(4) 사체낙서(1) 음부등에 이물삽입(1) 인육일부 섭취(2)	· 토막(1), 유방과 성기 절단(2) · 시체전시 및 허벅지 살 반출 · 유아장기훼손(1) · 사체처리 소각장 설치(1)

가. 범죄의 테마

범죄의 테마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자료의 수집문제 때문에 각각의 범행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쉬운 확률은 근거리로, 그와 반대의 경우는 원거리로 표시하는 연구방법을 시도하기가 어려워 단지 특성의 비교만 하였다. 하나의 사건이 복수의 테마에 중복(예를 들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성적 폭행형과 피해자통제형 충족)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격앙형, 공범형, 성적 폭행형과 피해자통제형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²⁵⁾

나. 수법의 변용

수법의 변용은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 처음에는 복면을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사용하지 않게 된 사례(1건)가 있고 복면보다는 안경과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이 많았다.

공격방법은 일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영철처럼 ‘버팔로 신발을 신은 범인’이라는 보도를 본 후 기습형에서 매복형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남규의 경우 초기 11건을 노상(비침입)에서 칼로 살해하다가 둔기로 바꾼 13건 범행부터는 1회를 제외하고는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살해(윤외출: 69)하는 수법으로 진화하였다. 이는 두 범죄자 모두 언론에

25) 1986. 10-1988. 7월 사이에 발생한 독극물 연쇄살인에서는 한 여성이 친정 아버지, 동생, 채권자에게 건강음료라며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주어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반복하여 6회에 걸쳐 5명 살해, 1명 살인미수의 범죄를 범하였다. 이는 어떠한 테마유형에도 속하지 않고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 편식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감한 범죄자로서 집중적인 범죄보도 이후에 범행수법을 변화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언론보도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격유형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윤외출: 88).²⁶⁾ 이런 점에서 언론의 범죄 수법 보도대상이 살인인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사기나 소매치기 수법보도와 차별하여 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다. 평균 범행횟수

연쇄살인범들은 총 164회에 대해 평균적으로 7.1회(164/23)를 범한 것이 된다. 만일 연쇄성 살인 5사건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평균 8.6회(154/18)가 된다. 연쇄성살인 및 미제사건 모두 제외하더라도, 즉 해결된 순수 연쇄살인만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평균 8.5회(127/15)가 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8회 이상 범행하고 나서야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결론이 된다.

라. 성적 동기

성적 동기에 의한 연쇄살인은 14사건으로 미제사건 3사건 중 2사건을 포함하여 60%를 차지하고 있다. Beasley(2004)는 7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에서 4명이 성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3명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소유물 중에서 보석이나 차량, 돈을 훔쳐간 것을 밝히고 있다(김상균, 2005). 그 외의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부자에 대한 적개심, 여성에 대한 혐오, 불행한 가족사 등 사회의 불합리성 위에서 자신이 돌연변이로 변형된 것처럼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 공범 여부

공범은 전체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어 연쇄살인은 80% 이상이 단독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 연쇄살인은 범인이 밝혀진 12사건 중 1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단독범에 의해 이루어졌다(92%). 범인의 수법(시체에 낙서, 피해자 뒤로 결박 및 성적 이상행동 등)으로 보아 단독범으로 추정되었던 미제사건 2건까지 단독범으로 처리하면 성적 연쇄살인은 92.8% 단독범에 의해 이

26) 두 사건은 정신병질의 공통점 이외에 조발비행, 절도,강도, 성폭력, 살인의 순서로 심화되는 점이 공통되지만 유영철사건은 현장특성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면 정남규사건은 현장이 산만하고 비체계적인 점에서 대조적이고 또한 유영철은 행동통제력이 상당하고 정남규는 행동통제불능인 점에서 대조적이다(이수정, 2006: 34),

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바. 운송수단 이용

차량이용 납치는 1993년 지존파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에의 접근성(택시이용, 고급승용차), 범행장비를 싣거나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활용되었는데 앞으로도 운송수단을 이용한 범죄가 예상된다. 특이한 사례로서는 선박을 이용한 노인의 성적 연쇄살인사건²⁷⁾도 등장하였다.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78%의 사건들에서 살인범들은 자동차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했고, 자동차를 이용한 연쇄살인범의 50%는 피해자를 태우는데 사용했다(James, 1991: 297; 임준태, 2009: 627에서 재인용)

사. 사체처리

사체처리방식은 서명적 행동을 드러내는 영역이다. 유영철 연쇄살인범은 증거인멸을 위하여 사체를 17-18 등분으로 절단하여 유기하였는데, 피해자에의 접근방식을 초기 밀렵자형에서 덧사냥꾼으로 바꾼 후 생긴 현상이다. 사체인육을 먹는 것은 보통 미신에 의한 살인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사체 전시는 일반적인 살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토막살인은 보통 연고감이 있는 면식관계자의 범죄이다.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던 일본의 토막살인사건 77건의 분석은 피해자속성에 따라 범인과 피해자의 사전면식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⁸⁾

27) 2007년에 70대 어부가 2회에 걸쳐 20대 남녀 4명을 1t 규모 소형어선으로 유인해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킨 사건이다. 그 노인은 성추행을 결심하고 여자와 같이 있던 대학생과 반항하는 여대생을 차례로 바다에 빠뜨렸다. 한 달이 채 안되어 젊은 여성 2명을 성추행하려다가 반항하자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28)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어떤 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70% 이상이고,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친족 또는 애인이 범인인 사건이 70% 이상이다. 한편 20세 이상의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90% 이상이 피해자의 지인에 의한 범행이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한국에서의 연쇄살인은 비교적 드물지만, 지역사회에 막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고 수사기관에게 무거운 압박을 주며 상당한 자원을 소진하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연쇄살인의 주된 피해대상은 특정 그룹, 예컨대, 외딴 집의 노인, 직업여성, 혼자 있는 젊은 여성, 순종적인 무임승차자 등이다. 근래 인권지향정책에 발맞추어 과학수사의 놀라운 진보가 있음에도, 이에 못지않게 인터넷 매체의 학습기능을 통해 살인의 범행수법이나 증거인멸 방법에서도 상당한 진보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쇄살인 및 연쇄성 살인 23사건(시리즈)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 단독범이고 미혼인 연쇄살인범은 2,30대의 범죄자가 대다수였고, 초범연령과 전과경력은 평균 19세, 4범이었으며, 면식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거될 때까지 평균 8.5회 정도의 범행을 지속했다.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의 출현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한 Holmes & DeBurger(1988)의 연쇄살인의 다섯 가지 특성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분석의 틀을 더 정교하게 하는 후속연구가 요망된다는 것과 연쇄살인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피해자화 환경의 분석이 요망된다는 점 그리고 미수에 그친 경우가 수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계량적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자료의 접근곤란이라는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학 협력마인드의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의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과 관련하여서 사회전반에서 종합적인 대응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연쇄살인의 평균 범행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고도의 프로파일링 기법 활용이 요구되며, 나아가 잠재적 연쇄살인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이코패스 진단이 내려진 수형자 내지 전과자에 관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죄종의 상승과 수법의 질적 변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아직 한국의 사례에서 동성애자, 정신이상자, 환자나 외국인 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에 따른 노인범죄 급증이나 인터넷 중독에 의한 연쇄살인,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연쇄살인²⁹⁾ 등을 예의 주시 내지 대비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수법, 테마, 피해자,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논문투고일 : 2009. 11. 11	심사완료일 : 2009. 11. 30	게재확정일 : 2009. 12. 9
----------------------	----------------------	---------------------

- 29) 2000년 안산에서 불과 두달 여만에 2명이 살해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성적 동기와 취재 목적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이 있긴 하다. 불법체류 중국인 왕리웨이(24세)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이를 연쇄성살인으로 볼 수 있었지만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참고문헌 |

- 가빈 드 베커. (2003). 「범죄신호」, 최정아(역), 서울 : 황금가지
- 공정식. (2006). “살인범들에 대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살인범들의 정신병질과 기질불안에 따른 범행특성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옥 · 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19(1).
- 김상균. (2005). “연쇄살인범의 범죄심리학적 특성분석”, 「한국범죄심리학회」, 3(1):
- 김원배. (2004). “연쇄살인사건의 특징과 수사”, 「수사연구」 9월호. pp. 24-37.
- 김재민 외. (2004).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 박충민. (2005). “연쇄 및 연쇄성 살인범죄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브라이언 이니스. (2005).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이경식 (역), 서울 : Human & Books
- 서울지방경찰청. (2004).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서울 : 대성인쇄소), pp. 1589-1762.
- _____. (2009). “정남규 연쇄살인사건 수사백서” (서울 : 범신사), pp. 16-17.
- 윤외출. (2007). “범죄관련 언론보도와 범죄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강력범죄자의 언론보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 이수정. (2006). “범죄프로파일링의 적용과 사례”, 「수사연구」 6월호.
- 임준태. (2009). 「프로파일링」, 서울 : 대영문화사
- 전석중. (1993). “살인사건의 수사”, 경찰종합학교 교관논문집 VIII, pp. 293-311.
- 폴 바비악 · 로버트 D. 헤어. (2006).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 이경식 (역), 서울 : 랜덤하우스

- 표창원. (2005). 「한국의 연쇄살인」, 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 홍성열. (2008). 「수사연구」 4월호.
-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2004고합972,973,1023 판결(유영철사형선고)
- Brent E. Turvey and Wayne Petherick. (2008). Forensic Victimology: Examining Violent Crime Victims in Investigative and Legal Contexts, Academic Press.
- Curt R. Bartol and Anne M. Bartol. (2008). Introduction to Forensic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Sage Publications, Inc; 2nd ed.
- Douglas, Jone E. Burgess, Ann W. Burgess, Allen G. and Ressler, Robert K. (2006).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 : Jossey-Bass. 2nd ed.,
- Joanna R. Adler. (2004). Forensic Psychology: Concepts, Debates and Practice , Willan Publishing (UK); illustrated ed.,
- Larry J. Siegel and Joseph J. Senna. (2007). Essentials of Criminal Justice With Infotrac, Wadsworth Pub Co; 5th ed.,
- Leonard Glick and J. Mitchell Miller. (2007). Criminology, Allyn & Bacon; 2nd ed.,
- Ronald M. Holmes and Stephen T. Holmes. (2002).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Sage Publications, Inc; 3rd ed.,
- 高橋 良彰. (2005). 「面白いほどよくわかる犯罪心理学-殺人、窃盗、暴力…人はなぜ罪を犯すのか」, 日本文藝社
- 大淵 憲一. (2006). 「犯罪心理学—犯罪の原因をどこに求めるのか」, 培風館
- 渡辺昭一. (2004). 「捜査心理学」, 北大路書房
- 渡邊 和美, 桐生 正幸, 高村 茂. (2006). 「犯罪者プロファイリング入門—行動科学と情報分析からの多様なアプローチ」, 北大路書房
- 藤岡 淳子. (2007). 「犯罪・非行の心理学」 有斐閣

- 福島 章. (2008). 「犯罪心理学入門」, 中公新書
- 細江 達郎. (2001). 「犯罪心理学 (図解雑学)」, ナツメ社
- 越智啓太. (2008). 「犯罪捜査の心理学」, 化學同人
- 諸澤英道. (2001). 「新版被害者学入門」, 成文堂.

The Theme and Characteristics of Serial Murders in Korea

Lee, Bonghan*

There is no doubt that serial murder, though happening rarely, brings about tremendous fears in community and puts great pressures on investigative agency, demanding a lot of resources available. The main target of serial murder encompasses generally a specific group, including the elder in isolated homes, prostitutes, the young female residents and a permissive free rider. It seems that the serial murder oriented for homosexuals, psychotics, the patients or foreigners has not yet appeared, which does not mean the way of being in the future. Accordingly to a great deal of advancement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under the atmosphere of human right oriented policies, many criminals also have learned the very elaborate skills and methods in order to perpetrate a crime without being arrested by way of Internet media etc..

To put brief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cerning to the most typical serial murders of 23 samples happened since the 1970's in Korea, It has increased just from the 2000's seemingly having resulted from both social pathology and individual traits combined, and been mostly performed by murderers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Most of the murderers has committed without accomplices against strangers and have continued up to 8 times on a statistical basis before being arrested. In particular, there have several prominent psychopath serial murderers.

This study might be criticized in perspective of its limitations which is lacking qualitative analysis of the mean interval between each event as well as gradually shortening terms and ending in failure with victims alive,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Daejeon University

following, if any, the degree of changes in MO and which needs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demised.

Key Words | Modus Operandi, Theme, Victim, Serial Murder, Psychopath